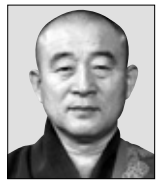


일주문



천태종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천태종복지재단 대표이사 정산 스님은 7월 1일부터 서초구 우면종합사회복지관, 구립 우면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한다.



제28회 호국영령위령대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현성 스님은 6월 25일 5군단 호국 금강사 제28회 호국영령위령대제에서 봉행위원장으로 천도법문했다.



고운사 한국사찰음식 문화연구소 개소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6월 25일 고운사에서 부설 한국사찰음식 문화연구소를 발족했다.



봉은사 김재일 소장 49재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7월 2일 봉은사 범왕루에서 김재일 사찰생태 연구소장 49재를 봉행했다.



금선사 청년회 창립법회 서울 금선사 주지 법안 스님은 7월 3일 금선사 대적광전에서 금선사청년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대불련 군포교지원단 기념법회 윤제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 문화 회장은 7월 17일 군포교지원단 설립 2주년 기념법회를 육군 제11보급대대 안국사에서 봉행한다.

<인사>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에 본오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27일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에 본오 스님을 임명했다. 본오 스님은 종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8년 사미계를 1992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용문사 주지를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인사> 조계종 종책특보단 법무위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27일 종책특보단 법무위원에 정석원 변호사를 위촉했다. 정석원 변호사는 200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조계종 법무전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조계종측 선암사 종무실장으로 있다. 노덕현 기자

천년지키는데 급할 것 없다

서울 흥천사 주지로 임명된 정념 스님... 강북 기도도량으로 발돋움



"천년 역사를 지키는 일은 수년이 늦더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6월 21일 조계종 미입주 사찰인 서울 성북구 돈암동 흥천사 주지로 조계종 종책특보단장 정념 스님이 임명됐다. 스님은 주지 임명에 대해 "마음이 무겁지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강북 중심 도량이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흥천사는 조선 태조 4년(1395)에 정릉의 능사로 창건됐다. 창건 당시 흥천사는 관세음보살상을 모시고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던 170여 칸 규모의 큰 사찰이었다. 특히 흥천사 극락보전은 조선 후기 사찰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화려한 목조 건축으로 뛰어난 건축기술을 보여주는 등 서울에서는 보기드문 사찰 건축으로 평가된다. 당초 조계종에서는 前 주지인 자재 스님이 JD힐딩스와의 불법매

매계약으로 받은 돈 문제와 흥천사에 입주해있는 타종단 스님과 사하촌 정리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토지 일부를 매각하려 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토지 매각을 제외한 정상화 방침을 세웠다. 정상화 비용은 최소 100억 원으로

예산된다. 정념 스님의 흥천사 주지 취임은 낙산사 복원 불사를 이끈 스님의 역량을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정념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당부했던 말씀이 절대 토지를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정상화를 위한 재원 마련에 종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복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모든 문제는 합리적이고 순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시간에 구애받아 문제해결에 급급하면 일을 그르친다고 생각한다"며 흥천사 문제에 대해 여유를 갖고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입주 스님들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흥천사 입주 스님들이 오랜동안 도량을 지켜온 부분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서로 약속한 것은 이행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념 스님은 흥천사가 정상화가 되면 서울 강북지역의 기도중심도량으로 불교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님은 "입지에서부터 강북지역의 중심사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특히 문화와 복지 분야에서 불교역량이 강화되는 단초가 되는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정념 스님은 성육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2년과 1987년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사회국장, 사회부장, 재무부장, 보현의집 원장, 봉정암 주지, 낙산사 주지, 보현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총무원장 종책특보단장, 낙산사 회주로 있다. 노덕현 기자

불교계 일꾼들, FC붓다 창단 26명으로 구성·월 2회 경기



불교계 일꾼들이 축구동호회 'FC붓다'를 창단하고 교류 활동에 나섰다. FC붓다는 6월 25일 남양주 광동고등학교에서 범회 형식의 창단식을 열고 이동경 현대불교신문사 부장 등 운영진을 선출했다. 이동경 회장은 "불교계 일꾼들이 축구를 통해 교류와 화합을 이끌어내고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FC붓다는 불교계 언론매체 및 신행단체, NGO 등에 종사하는 불자들이 모인 단체로 월 2회 이상의 자체 경기와 친선 경기, 각종 아마추어 대회 출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총 26명의 회원으로 동호회 상정은 금강역사다. 이날 FC붓다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축구 모임 사자후, 봉은사·불광사 연합팀과 함께 창단 축하 경기를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순천 선암사 주지에 정만 스님

"태고종과 상호 신뢰에 바탕해 일처리 할 것"



순천 선암사의 조계종 측 주지에 기획실장 정만 스님이 새로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28일 선암사 새 주지로 정만 스님을 임명하고 "태고종과 원만한 합의로 선암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만 스님의 임명은 서울 흥천사 주지로 임명받은 전 주지 정념 스님이 사퇴하며 생긴 공석으로 인한 것이다. 노덕현 기자

자승 스님은 이날 태고종과의 원만 합의를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서로 간 욕심을 내면 다툼 생기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정하길 바란다"며 "선암사는 조계종과 태고종 모두 중요한 사찰인 만큼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만 스님은 "태고종과 대화를 충분히 갖고 상호 신뢰에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 선암사는 조계종 제 20교구이자 태고종 총림본산으로 최근 순천시청의 문화재 관리 부실을 계기로 태고종과 정상화에 대한 합의가 진행 중에 있다. 정만 스님은 백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7년과 1979년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재무부장과 호법부장,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총무원 기획실장, 범어사 부주지로 있다. 노덕현 기자

김형중 교법사, 영랑문학상

평론 '한글 선시의 현대적 활용'으로



김형중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여중 교법사가 제16회 영랑문학상을 수상했다. 월간 순수문학사(발행인 박영하)는 6월 28일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제16회 영랑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평론부문으로 김형중 교법사에게 상을 수여했다. 김형중 교법사의 <한글 선시의 현대적 활용>은 근대 학문적으로 실용화할 가능성을 제시한 평론이다. 심사위원들은 김 교법사의 작품

에 대해 "<한글 선시의 현대적 활용>은 우선 한국 현대사에서 취약점으로 방치되어 있는 영역인 선시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전착력을 보여주었다. 오래 서구적 이론과 모더니즘 기법에 치우친 나머지 비평의 척도마저 구미에 얽매인 어느 비평가들과는 대조된다. 무엇보다 한국 전통시의 원류를 불교적 상상력과 연관해서 접근한 노력을 높이 사고 싶다. 불교 경전과 한글 선시로 이어진 만해, 무산의 시작품을 들어 평설하고 있다"고 평했다. 김 교법사는 "한글 선시의 추구는 한국 현대시를 올바르게 세우고 거듭나게 하는 지름길을 찾는 일"이라며 "불교계도 한문 선시보다는, 우리글인 한글 선시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상은 이옥희 시인, 본상은 나숙자·이방원·홍은숙 시인, 우수상은 김채원·김민정 시인이 각각 수상했다. 이은 기자

공불련, 사회봉사의날 봉사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 이하 공불련)는 6월 25일 '공불련 제8차 사회봉사의 날'을 맞아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감사원불자회 조동호 회장, 보건복지부불자회 이상인 회장 등을 비롯해 6개 기관의 20여 회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공불련 회원들은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무한돌봄네트워킹팀 사례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집안청소 등을 도왔으며, 쌀과 휴지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이은정 기자

만해 스님 열반 67주년

추모다례제 선학원서 봉행

만해 스님 열반 67주년 추모다례제가 6월 29일 서울 선학원(이사장 법진) 중앙선원에서 봉행됐다. 다례제에는 만해 스님의 친필인 한영숙 여사와 부군 정택근 거사 등 유족 관계자 및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신명철 북부보훈지청 지사장, 신명철 전 청와대 국정홍보처 처장,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만해기념관 전보삼 관장 대행 전덕윤 씨 등이 참석했다. 이상언 기자

새 불자가 시작되는 '777' 타이벤트 7월7일 오후7시 희망이 시작됩니다

- 법림 법회는 신선편합니다!
법림 법회는 아름답습니다!
법림 법회는 감동이 가득합니다!
법림 법회는 정법만을 추구합니다!
법림 법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새 신행모임 '법림(法林)' 마포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첫 법회 한국불교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 법림의 장도에 동참합시다

'제가의 선지식' 적연 이계열 법사를 스승으로 한 새로운 불교신행모임 '법림(法林)'이 창립됩니다. '법림'은 적연 이계열 법사의 지도아래 매월 1회 정기법회(첫째주 목요일 오후 7시)를 열고, 담마, 즉 법(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을 중심으로 교학과 수행을 실천함으로써 마침내 해탈과 열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의 모임입니다.

법림은 월 1회 정기법회를 중심으로, 더욱 심화된 불교공부를 위한 경전 강좌 및 불교교리 강좌, 수행법회 등을 기본 골격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금강경 강좌(인천), 반야심경 강좌(서울), 수행법회(서울)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서산 마애삼존불 옆 수행도량 '유마선원'이 법림의 근본 수행도량이며, 앞으로 법림 회원들의 수행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법림은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오는 7월 7일(목)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역사적인 첫 법회를 '만남'을 주제로 해 봉행합니다.

법림 법회의 법사는 적연 이계열 법사님이며, 실법과 함께 즉문즉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림에는 불자는 물론이고 불교의 정수를 제대로 바르게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문호를 활짝 연 신행모임을 지향합니다. 법림은 단순한 신행모임을 넘어 한국불교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진리의 모임'으로 발전해가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법회의 형식 및 법회 진행의 세부적인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림만의 색깔을 드러낼 것입니다. 법림 법회의 시간을 평일 저녁으로 정한 것은 직장인들과,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도 마땅한 배울 곳과 불교를 가르쳐줄 스승을 찾지 못한 분들에게도 바른 불교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흐름, 정법불교 선양을 지향하는 법림의 첫 출발을 인연 있는 소중한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희망과 행복으로 가는 법림의 장도(壯途)에 모두 길벗이 되어주십시오. 환영합니다.

